

은마아파트, 2030년 착공... 49층 5893세대 대단지 탈바꿈

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첫 적용
정비사업 기간 18.5년→12년 단축
2034년 준공... 주차난 해소 기대

십 년 넘게 재건축이 정체됐던 대치동 대표 노후단지 '은마아파트'가 49층 높이의 5893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전면 혁신이 핵심인 '신속통합기획' 시즌2'가 처음 적용된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최초로 도입해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을 결합한 새로운 주거 모델이 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2030년 첫 삽을 뜨고,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제도로, 정비지수제 폐지와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5년→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오세훈 서울시장(앞줄)이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 은마아파트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등으로 기존 대비 평균 5.5년이 단축됐다. 이번 시즌2에서는 여기에 1년을 추가로 줄여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14층, 4424세대 규모의 강남 대표 노후단지

다.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층수 제한과 GTX-C 노선의 지하 관통 문제 등으로 십여 년간 재건축이 지연돼 왔다. 2015년 주민 제안으로 추진된 50층 계획은 당시 35층 높이 규제에 막혀 무산됐으며, 2022년 말 35층 규모로 재건

축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2023년 높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올해 1월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후 8개월 만인 9월 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은마아파트는 공공주차장을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의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방형 공공도서관·국공립어린이집·치안센터·공원·저류시설 등 교육·복지·안전이 어우러진 복합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정비사업으로는 처음으로 공공분양 주택도 도입된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법정 상한 300%→331.9%)를 적용해 총 655세대를 추가 공급하는 방식이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이 가운데 195세대는 다자녀 가구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 227세대는 민간분양, 233세대는 공공임대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현재 은마아파트 외에도 5개 단지에서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다. 시는 단지의 입지와 도로 여건,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 단계에서 적정 완화 범위를 설정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시작으로 강남권을 비롯해 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지역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2031년까지 강남구 2만5000호, 서울 전역 3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은마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의 주택공급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노후 주거지의 민간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식품업소 13곳 원산지 표시법 등 위반

서울시 민사경, 총 102곳 점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전통시장과 배달업을 통해 반찬류 등을 판매하는 식품업소 102곳을 점검한 결과, 13곳이 원산지 표시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9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1건이었다.

특히 배달앱에는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산을 사용한 업소와, 국내산과 수입산을 병기해 혼동을 유도한 더덕무침 판매업소가 적발됐다.

또 관악구의 한 축산물 판매업소는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DNA 검사 결과 외국산으로 드러나 입건됐다.

종로구의 한 식품판매업체는 소비기

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업체는 어르신들이 주로 찾는 저가 식품을 판매하며,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중심으로 취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전통시장·반찬가게 등을 현장 점검하는 한편, 고객을 가장해 한우·돼지고기를 구입해 원산지를 검사했다. 한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했다.

적발된 13곳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9곳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 나머지 원산지 미표시 및 소비기한 위반 4곳은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현진 기자

주요대학 신입생 '강남 3구 쏠림' 여전

의대 쏠림은 일반학과와 두 배 수준
김문수 의원 "교육 계층쏠림 우려"

올해 주요 대학 신입생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출신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의대의 강남 3구 쏠림은 일반학과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2021~2025학년도 강남 3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 비율'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A대 신입생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은 12.85%였다. 약 8명 중 1명꼴이다. A대 의대는 이보다 높은 21.90%로, 5명 중

1명이 강남 3구 출신이었다.

B대는 전체 12.45%, 의대는 24.78%로 4명 중 1명 수준이었다.

전국 39개 의대 가운데 강남 3구 고교 출신 비율이 ▲30% 이상인 곳은 1곳 ▲20~30%는 8곳 ▲10~20%는 10곳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대학은 31.82%로 세 명 중 한 명이 강남 3구 출신이었으며, 가장 낮은 대학은 3.03%였다.

올해 2월 기준 교육통계에 따르면 강남 3구 고등학교 졸업생은 전국의 3.18%에 불과하다. 그러나 39개 의대 중 이 비율보다 낮은 곳은 단 1곳뿐이었고, 나머지 37개 의대는 모두 이를 웃돌았다.

김문수 의원은 "우리 교육은 계층 쏠림, 지역 쏠림, 의대 쏠림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쏠림은 학생에게는 지나친 경쟁으로, 가정에는 부담스러운 사교육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진국이 되었다는데 삶은 여전히 고단하다. 교육이 그 핵심 원인"이라며 "서울대 10개 등 균형을 꾀하는 해법을 찾고, 대학 안에서도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자료는 각 대학이 제출한 데이터를 교육부가 취합해 제공한 것으로, 대학별 구체적인 인원 수는 공개되지 않아 의대 전체의 강남 3구 신입생 평균 비율은 산출되지 않았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23일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식

6726억 투입... 12월 부터 본공사

고양시가 대한민국 마이스(MICE)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시는 오는 10월 23일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식을 열고 12월부터 본격적인 본공사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착공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시설·경쟁력·조직을 아우르는 '3대 축'의 완성을 의미하며, 고양시가 글로벌 마이스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착공식에는 정부와 국회, 지자체, 산업계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고양시의 도전을 함께 기념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제3전시장 착공을 계기로

숙박과 교통, 편의시설을 아우르는 복합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총사업비 6726억 원이 투입되는 제3전시장은 올해 3월 기초공사를 마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3A 전시장(4만7000㎡, 4개홀·6개 회의실)과 3B전시장(1만2000㎡, 2개홀)이 조성되며, 완공 시 킨텍스는 제1·2전시장을 포함해 총 17만㎡ 규모의 전시공간을 갖추게 된다. 이는 미국 CES, 독일 IF A, 스페인 MWC 등 세계적 전시회가 가능한 수준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6조4,565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3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근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1, 2, 3전시장 조감도.

경제자유구역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문화·관광이 결합된 성장 동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숙박 인프라 확충도 본격화된다. 킨텍스 인근 부지에는 4성급 '노보텔 앰배서더 킨텍스'가 들어서며, 지하 1층~지상 19층 규모, 300실 규모로 2029년 완공 예정이다. 완공 시 소노캄(826실), 케이트리(422실)와 함께 약 1,500실의 숙박 인프라가 조성된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10월 14일 (화)

음력 : 8월 23일

수도권 날씨

15~20℃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39

해질 / 17:57

백령도 15/21

파주 14/20

연천 15/20

동두천 14/20

가평 14/20

가평 14/20

양평 14/21

용인 16/20

수원 16/20

인천 16/21

평택 17/21

서울 15/2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美연방정부 섰다운 12일째...스미스소니언·국립동물원 폐쇄
▲트럼프 "가자 전쟁은 끝났다"...오늘 이집트서 '중동 평화' 서명식 /사진 뉴시스

▲佛 극좌·극우, 르코르뇌 2차내각도 불신임 추진...사회당 선택은?
▲中 공안, 대만군 작전국 핵심 간부 18명 현상수배·사진 공개

▲오사카 엑스포, 6개월 대장정 마침표...누적 2500만명 돌파
▲BBC, 제주항공 참사 다룬다...“항공업 치명적 한 해”